

## ‘웃다운’ 마린보이 박태환

### 팬퍼시픽수영선수권 자유형 200m 은빛 물살 1500m선 중 장린에 완패... 아시안게임 불만

박태환(21·단국대)이 2010 팬퍼시픽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는 은메달을 따지만 자유형 1,500m에서는 맞수 장린(중국)에 완패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불안감을 안겼다.

박태환은 19일 낮(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의 윌리엄 윌렛 주니어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대회 첫날 남자 자유형 1,500m 경기 마지막 조에서 15분 13초91의 저조한 기록으로 터치패드를 찍어 조 5위, 전체 25명 중에서는 8위에 머물

렀다. 14분49초47로 1위를 차지한 라이언 코크레인(캐나다)은 물론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다룬 장린(중국·14분58초90)과도 격차가 너무 컸다. 3위를 차지한 장린에게는 15.01초나 뒤졌다.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 때 세운 개인 최고기록이자 한국 기록인 14분55초03에는 무려 18.88초나 모자랐다.

2006년 11월 동아시아게임에서 당시 한국 신기록(15분00초32)을 세운 뒤로도 가장 처진 기록이다.

박태환은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명에 회복을 버트면서 올해 두 차례 호주에서 실시한 전지훈련의 성과를 점검하려고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특히 도하 아시안게임 이후 한 번도 기록을 깨지 못했던 자유형 1,500m에서만큼은 꼭 새 기록을 세워보겠다는 것이 그의 각오였던 터라 이날 결과는 실망스럽다.

팬퍼시픽대회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태평양 연안의 수영 강호 4개국 중심이 돼 시작한 대회인데, 비회원국의 세계

적 스타들까지 출전해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 버금가는 수영계의 빅 이벤트다.

한편 박태환은 앞서 열린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는 1분46초27에 레이스를 마쳐 미국 국가대표 라이언 로치트(1분45초30)에 이어 2위에 올랐다. 2006년 대회에 이어 대회 2회 연속 은메달이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 때 세운 개인 최고 기록이자 아시아 기록인 1분44초85에는 1.42초가 뒤졌지만, 올림픽 이후 가장 좋은 기록을 썼다. /연합뉴스



박태환이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열린 팬퍼시픽 수영대회 남자자유형 200m 결선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박태환은 2위로 골인했다. /연합뉴스

## 태권도 종가 자존심 지켰다

### 청소년올림픽 남녀 동반 금빛 발차기

한국 태권도가 제1회 청소년올림픽에서 남녀 동반 금메달을 획득하며 종가의 자존심을 지켰다.

김진학(17·부천 정산고)은 18일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벌어진 태권도 남자 73kg급 결승에서 알리아사 시라초프를 상대로 3라운드 막판 결정적인 머리공격을 성공시켜 6-4로 짜릿한 승리를 낚았다.

지난 14일 열린 개막식에서 한국선수단 기수를 맡았던 김진학은 이날 8강에서 싱가포르의 리지아제를 12-1로 꺾었고 4강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마킵 도미니언을 6-4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금메달이 결정되는 마지막 경기에서 김진학은 3라운드 중반까지 3-3으로 팽팽한 접전을 펼치다 경기 종료 40여초를 남기고 기습적인 3점짜리 머리 공격을 성공시켜 승기를 잡았다.

시라초프는 막판 총공세에 나섰지만 김진학은 몸통 공격 한 차례만 허용한 채 경기를 마무리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63kg급 결승에 나선 전수연

(17·관악고)은 독일의 안토니아 카데르를 4-1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1라운드에서 몸통 공격으로 먼저 1점을 뽑은 전수연은 2라운드에서 돌려차기 머리공격으로 3점을 보냈다. 마지막 3라운드에서 추가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몸통 공격 한차례만 허용해 완승을 거뒀다.

이번 청소년올림픽에 남녀 4명의 선수가 출전했던 한국은 3체급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태권도 최강국의 전통을 이어갔다.

한국은 대회 나흘째인 이날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순항을 거듭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싱가포르 인터내셔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올림픽 태권도 남자 73kg 결승에서 한국 김진학이 러시아 시라초프를 상대로 돌려차기를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승점 4점차 K리그 1~5위 선두다툼

### 주말 18라운드... 전남, 1위 돌풍 경남과 한판 대결

프로축구 K리그가 순위 싸움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주말 전국 7개 구장에서 2010 K-리그 프로축구 제18라운드 대결이 벌어진다. 매주 순위가 뒤바뀔 정도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접전의 연속이다.

승점 34점(10승4무2패)을 챙긴 경남의 1위 돌풍이 매서운 가운데 제주와 전북이 경남의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제주와 전북은 나란히 9승4무3패, 승점 31점으로 선두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골득실차에서 앞선 제주가 2위를 수성하고 있지만 주말 승패에 따라 1~3위에 랭크되는 팀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

성남, 서울, 울산의 자리 싸움에도 불이 붙었다.

4위 성남과 5위 서울은 승점(30점)

과 득실차(15)에서도 차이가 없다. 성남이 31득점으로 27득점을 기록한 서울을 따돌리고 위태로운 4위를 지키고 있다. 울산도 승점 28점으로 언제든지 선두권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다.

선두 탈환을 위한 재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은 홈 11연승의 대기록 달성에도 도전한다. 서울은 지난 3월 27일 포항전 승리를 시작으로 지난 4일 제주와의 경기까지 홈 10연승을 달리고 있다. K-리그 역대 최고 기록은 10연승. 서울은 21일 오후 8시 강원을 홈으로 불러들여 기록경신에 나선다.

중위권 진입에 도전하는 전남은 전주로 가 1위 경남과 한판 승부를 벌인다.

전남은 올 시즌 4승5무7패를 기록하며 11위로 밀려 나 있지만 최근 상

승세가 무섭다.

지난주 안방에서 열렸던 제주와의 K-리그 17라운드 경기에서 전반에만 4골을 뽑아내는 등 물오른 공격력을 과시하며 4-2로 승점 3점을 챙겼다.

18일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FA컵 경기에서도 지동원의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상무를 제압하고 4강 진출을 확정 짓는 등 전남은 후반기 대공세를 벌이고 있다.

진주에서의 경기는 신인왕 대결로도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전남의 지동원과 경남의 윤범가람은 올 시즌 K-리그 무대에 새 바람을 일으키며 신인왕을 놓고 힘겨투기를 하고 있다.

지동원은 FA컵에 이어 다시 한번 골 사냥에 나선다. 지동원은 18일 FA컵에서 1-1로 맞선 후반 40분 결승골을 차 넣으며 5골로 FA컵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 떠나는 '상무' 총복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여론수렴을 시작으로 도민프로축구단 창단 절차에 돌입한 총복도에 상무팀 유치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올해 광주시와의 연고 계약이 종료되는 상무팀 유치 제안서를 최근 총복도에 보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준하 연맹 사무총장은 20일 도를 방문해 제안 배경과 상무팀 운영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연맹은 제안서에서 유치 조건으로 3년 내 총복연구 구단 창단,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 설립 등을 제시했다. 3년 내 연구구단 창단이란 도가 상무팀을 유치해 내년부턴 K리그에 참가하되 2013년까지 별도의 프로축구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2003년부터 광주 상무를 운영해 왔던 광주시는 시민구단(광주 FC)을 창단해 내년 K리그에 참가한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장흥중, 중등 축구연맹전 2연패 도전

장흥중이 추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 2연패에 도전한다.

전남 장흥중은 18일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45회 춘계 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 경기 통진중과 홍무그룹 준결승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3으로 결승행을 확정지었다.

지난 대회 봉황그룹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장흥중은 20일 오후 1시30분 부산 중앙중과 마지막 대결을 갖고

대회 2연패에 나선다.

장흥중 김동근 감독은 "선수들이 고른 기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특정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 조직력을 앞세운 승부로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개막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 233개팀(고학년 139개팀, 저학년 94개팀)이 참가, 5개 그룹으로 나눠 모교의 명예를 걸고 열띤 경기를 벌였다. /김여울기자 wool@

## 와인스쿨 에폴 뒤 뱅

### 입문반 개강

와인스쿨 에폴 뒤 뱅 입문반 개강

와인스쿨 에폴 뒤 뱅 입문반 개강

## 2010. 8. 20부터 4주 과정 (매주 월요일 오후 7:00 - 10:00)

2010. 8. 20부터 4주 과정 (매주 월요일 오후 7:00 - 10:00)

2010. 8. 20부터 4주 과정 (매주 월요일 오후 7:00 - 10:00)